광주체고 女체조 '천하무적'

박은경 3관왕…장관기대회 단체종합 우승

장관기 체조대회 3관왕을 차지한 박은경.

광주체고 여자체조팀이 국가대표 박은경의 3관왕에 힘입어 전국 정상에 올랐다.

광주체고는 24일 대전 사정인라인롤러 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체조대회에서 단체종합 우승 등 금 3개·은 1개·동 2개를 획득하며 '무적의 체조팀'임을 입증했다.

김지현·김해련·박은경·유예슬·정소희가 출전한 광주체고는 단체종합에서 184.800점을 획득, 경기체고(176.425점)·서울체고(175.150)를 각각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박은경은 개인종합(51.675점)과 도마(13.387점)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단체종합과 함께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또한 박은경은 평균대에서 12.775점으로 신한솔(대전체고·13.825점)에 이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으며 이단평행봉에선 10.175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박은경은 이번 대회에서 금 3·은 1·동 1개를 획득하면서 팀 우승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김해련은 도마에서 11.950점으로 팀동료 박은경과 조현주(학성여고·12.750점)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학부 경기에선 전단비(전남대)가 도마(12.137점)와 마루(12.275점)에서 각각 우승, 2관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단비는 개인종합에서 47.275점으로 강지나(한국체대·48.650점)에 뒤져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전단비는 평균대(11.425점)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수지(전남대)는 이단평행봉에서 12.350점을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물음(전남대)은 개인종합과 이단평행봉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남대는 대학부경기에서 금 3·은 2 동 3개를 획득했다. 일반부에선 박정혜(도곡스파랜드)가 도마에서 12.800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

24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폐막식에서 한국선수들이 다음 대회 개최지인 '대구에서 만납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대구에서 만나요

베를린 세계육상대회 폐막…미국 1위 자메이카 2위

차기 개최국 한국 결선·10위권 진입 한명도 없어

미국이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녀 1,600m 계주에서 동반 축배를 들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은 24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대회 열흘째 여자 1,600m 계주에서 200m 우승자 앨리슨 펠릭스와 400m 금메달리스트 사냐 리처즈의 역주에 힘입어 3분17초83으로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어 400m 금.은메달을 독식한 라숀 메리트와 제러미 워리너를 앞세워 남자 1,600m 계주에서도 2분57초86의 시즌 최고기록으로 3회 연속 정상을 지켰다.

남녀 400m 계주에서 겪은 '바통 악몽'을 씻어내고 여자 멀리뛰기까지 금메달 3개를 보탠 미국은 금 10, 은 6, 동메달 6개로 2003년 파리대회 이후 4회 연속 종합 우승을 일궜다. 그러나 2005년과 2007년 연속 금메달 14개씩 땄던 것에 비하면 숫자가 많이 줄었다.

3관왕을 차지한 '번개' 우사인 볼트(23)를 앞세운 자메이카는 금메달 7개로 2위에 올라 육상 강국 반열에 들어섰다.

'장거리 황제' 케네니사 베켈레(에티오피아)는 이날 열린 남자 5,000m 결승에서 13분17초09로 금메달을 땄다.

작년 베이징올림픽에서 28년 만에 5,000m와 10,000m를 동시에 석권했던 베켈레는 주종목인 10,000m에서 대회 4연패를 달성한 뒤 5,000m까지 2관왕에 올라 최강임을 확인했다.

중국은 금 1, 은 1, 동 2개로 선전했고 일본도 여자 마라톤과 남자 창던지기에서 각각 은, 동메달을 따내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줬다.

반면 19명이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단 한 명도 결선 또는 10위권 안에 오르지 못하고 큰 숙제만 안은 채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볼트가 100m와 200m에서 9초58, 19초19를 찍었고 폴란드의 아니타 블로다치크가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77m96을 던져 총 3개의 세계신기록이 수립됐다.

열흘간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심히 '뛰고 던지며 날았던' 전 세계 건각들은 2011년 대구에서 열릴 제13회 세계대회에서 재회를 기약했다. /연합뉴스

광주고 농구 올 2관왕 '눈앞'

쌍용기 전국고교대회 서울대진고 꺾고 결승행

'농구 명문' 광주고가 올시즌 전국대회 2관왕에 도전한다.

광주고는 24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고려대총장배 겸 쌍용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 남고부 준결승에서 석종태의 나홀로 43득점 맹활약에 힘입어 서울대진고를 87-72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광주고는 지난 2월 여수시장기 전국대회에 이어 시즌 두번째 정상을 노린다.

이날 경기에서 광주고의 공·수 조화가 돋보였다. 초반부터 골밑을 장악한 광주고가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으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 하지만 대진고의 추격도 만만치않아 전반을 45-42, 3점 앞서며 마쳤다. 후반들어서는 정윤성·신재호·허경부의 외곽슛까지 터진데다 가로채기 등 수비까지 돋보이는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날 신장 196㎝의 석종태(센터)는 무려 43득점에 리바운드 18개로 공·수에서 탁월한 기량을 펼쳐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또한 신재호(가드)와 허경부(가드·)도 각각 3점슛 2개씩 13득점을 기록하며 코트를 종횡무진 누볐다.

이밖에도 이원철은 가로채기 3개, 정윤성은 3점슛 3개로 각각 공·수에서 빛나는 투혼을 발휘해 팀 결승 진출에 힘을 보탰다. 광주고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광신고를 꺾고 결승에 오른 울산 무룡고와 대회 패권을 다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허정무호 해외파 총동원령 내달 5일 호주 평가전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A매치 경기 일정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허정무 감독이 해외파 총동원령을 내렸다.

허정무 감독은 다음 달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호주와 평가전을 앞두고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포함한 해외파 15명을 불러들였다.

해외파 15명을 호출한 것은 역대 최다 규모다. 허 감독은 지난 12일 파라과이와 평가전 때 팀 적응을 위해 빠졌던 박지성과 한국인 7호 프리미어리거 이청용(볼턴)을 비롯해 조원희(위건), 올해 잉글랜드 무대로 복귀한 공격수 설기현(풀럼), 대표팀 독일 분데스리가에 뛰는 수비수 차두리(프라이부르크) 등 유럽파 선수는 대부분 소집했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하게 되는 설기현과 차두리는 정해성 코치를 보내 몸 상태를 점검한 뒤 발탁을 결심했다.

지난해부터 대표팀에서 제외됐던 김남일, 조재진, 중국으로 건너간 안정환이 포함된 것은 특히 눈길을 끈다.

이번에 해외파가 총망라된 것은 최근 축구협회와 대표 차출을 놓고 갈등을 빚는 국내 K-리그 구단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레슬링 은3·동1

광주체고가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은메달 3개·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경북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자유형 46kg 결승에서 정용석(경기체고)에게 1-2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하대성(자유형 85kg)과 김찬영(자유형 91kg·이상 광주체고)도 차영진·김정길(이상 경북오천고)에게 각각 0-2로 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서승원기자 swseo@

화정초 야구 결승 진출

광주 화정초가 '초등야구 왕중왕'을 노린다.

화정초는 24일 강원도 속초 종합운동장야구장에서 열린 스포츠토토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왕중왕전 준결승에서 경기 신곡초를 10-5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화정초는 25일 오전 10시 광주 수창초를 꺾고 결승에 오른 경기 관산초와 왕중왕을 놓고 한판승부를 펼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스포츠중계

25일(화)

▲고대총장배 전국고교농구대회 결승(13 : 50·SBS스포츠)

▲2009 프로야구〈한화 : KIA〉(18 : 10·KBS n스포츠) 〈롯데 : 삼성〉(18 : 15·SBS스포츠) 〈두산 : SK〉(18 : 15·Xports) 〈히어로즈 : LG〉(18 : 20·MBC ESPN)